

한국 개신교 수도원 운동의 유형론적 분석과 윤리적 의미*

이장형 (백석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I. 들어가는 말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필요성

II.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수도원운동

1. 수도원운동의 기원과 전개
2.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역사
3.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선행연구

III.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유형론적 분석

1. 유형화 연구의 필요와 유익
2. 한국 개신교 수도원 단체의 유형화 및 분석
3.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기독교윤리적 함의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0.08>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35178). 개신교 수도원 현장에 대한 자문에 응해주신 강문호 박사(충주봉쇄수도원), 유해룡 박사(모세골 원장), 정원범 교수(대전신학대학교) 등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 주저자, janghyung@bu.ac.kr.

• ABSTRACT •

A Typological Analysis and Meanings of the Protestant Monastic Movements in Korea

Prof. Lee, Janghyung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the Protestant monastery movement required in this era by investigating various Protestant monasteries in Korea and conducting typological analysis. Firstly, as the emergence of the monastic movement is a reflection of social chaos and the depravity of the church, it can be seen that our modern society demands the succession of the movement and is already developing in various forms. Secondly, a more active and specific Protestant monastic movement is needed. In a world subjugated to the idols of Mammonism, the church should be reformed according to a monastic community distinct from the trend of the times. Thirdly, a return to the space separated from the secular world and focuses on spiritual training (whether long-term or temporary) is needed. Currently, many prayer centers and spiritual centers are facing difficulties in management, because buildings and investments are prioritized over people and contents. In consideration of Catholic retreats, the space for “spirituality training” is required to embrace people in the postmodern era restoring the Protestant tradition of Bible study for revival.

Key words: Typological Analysis, Protestant Monastic Movements, Seclusion, Coexistence, Center Types

I. 들어가는 말

1. 문제의 제기

‘개신교 수도원운동’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개신교 내에도 천주교처럼 수도원운동이 있는가 혹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수도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논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승되어온 수도원운동의 취지를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동안 막연히 평가되어 온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도원운동을 성격별로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담보할 기독교윤리적 함의를 파악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런 유형별 범주화 및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의 수도원들이 발흥한 배경과 동인, 수도원들이 추구하는 모토와 방향성, 목적 의식과 가치관, 규율과 조직체계, 주요행사들,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각 유형별 수도원운동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영성과 윤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문헌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일정 부분 현장 탐방 등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한국 개신교의 수도원운동과 관련하여 유형에 대한 가설 설정, 유형별 분류 작업 등을 통해 세 개의 유형으로 범주화함으로써 각 유형별 분석을 거쳐 한국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수도원의 대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나아가 개신교 수도원의 역사적 존립과 운동 과정을 살펴보고 게시히테(Geschichte) 차원에서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해 수도원운동이 주는 교훈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유형화 작업과 분석은 오늘날 개신교의 수도권 운동이 갖는 기독교윤리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사료된다.

2. 연구의 필요성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간 한국인들의 종교와 종교의식 변화를 비교한 한국인의 종교 실태 조사에 따르면 3대종교 중 무종교인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는 불교(25%)였고, 그다음이 천주교(18%), 그다음 종교로 개신교(10%)를 꼽았다.¹⁾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적 분위기는 조사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기초 그 자체는 큰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각종 매스미디어에서는 교회의 비리와 병리적 징후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공론화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조차 상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기독교는 전래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서구문물 유입과 이에 따른 문화지체 현상, 일제치하 신사참배의 굴욕, 한국전쟁의 혼란과 이단발흥, 유신체제와 민주화 항쟁, 교단분열, 경제의 급성장과 mammonism(mammonism) 등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점차 세속화의 조류에 편승해 왔다.²⁾ 전통적인 복음화 사역은 현저하게 정체 국면에 접어든 지 오래되었고,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 상황을 맞아 탈 기독교화, 반(反)기독교적 정서가 급속도로 확대된 양상을 보여준다.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이며 부정적으로 보는 현상에 대해 주도홍은 의미 있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한국기독교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로 믿어야 할까(what to believe)”라는 문제만 가지고 씨름해 왔지 “어떻게 그 복음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how to live)”

1) 김홍일, “한국교회의 문체와 수도권 영성의 재발견”, 『기독교사상』 제675집(2015), 46.

2) 안수강, “길선주의 성화론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9집(2014), 141.

의 문제를 깊이 있게 논하지 못한 데서 세속주의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파악했다.³⁾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의 존립 목적에 대해 자성적이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며, 반드시 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중대한 과업을 떠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신교 수도원운동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신교 체제와 전통 안에서 추구되어온 수도원운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원운동은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치우친 한국교회의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개혁, 경건성, 영성, 성화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반성과 동인을 제공할 수 있다. 한 세기 이상 급변하는 시대상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번영주의와 세속화에 편승해왔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개혁운동이 절실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수도원운동 연구는 개혁정신과 성화가 사라진 한국 기독교에 적실성 있는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심장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수도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세계 기독교사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몇몇 수도원들에만 한정되다시피 했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수도원 관련 논의는 대개 천주교에 편중되어 있었다. 개신교 수도원들에 대한 연구로 백용기, 김홍일, 이덕주, 배덕만, 최중현, 서재룡 등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지금은 현 시류에 맞추어 개신교 수도원 현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수도원운동은 기성교회의 외부에 있으면서도 기성교회의 내부를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과 추진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교회됨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아나뱃티스트 운동(The Anabaptist Movement), 파라처치(Para-church) 운동,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속칭 ‘가나안 교인’⁴⁾ 등 다양한 양태로 기존 교회를 부정하

3) 주도홍, 『새로 쓴 세계교회사』(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10), 671-672.

거나 저항하는 일련의 지속적인 흐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신교 수도원운동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촉구하는 적실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도원이 지닌 내연(內燃)의 힘은 외연(外延)의 과정을 거쳐 교회에 침투해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인 개혁운동을 촉발할 수 있는 강점을 갖기 때문이다.

II.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수도원운동

1. 수도원운동의 기원과 전개

수도원이라는 말은 영어로 ‘Monastery’로 헬리어 ‘모노스’(μόνος: 홀로, 단독으로)에 어원을 둔다. 이 용어에서 ‘Monasterion’(수도원), ‘Monaxos’(수도사)란 말이 생겨났고, 라틴어 ‘monachus,’ 영어 ‘monk,’ 독일어 ‘Monch,’ 프랑스어 ‘moine’ 등이 파생되었다.⁵⁾ 어원적 풀이로 “수도원은 홀로(단독으로) 묵상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목적으로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⁶⁾ 전반적으로 수도 생활은 일면 신비주의의 색채와 금욕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며 청빈, 금식, 독신주의와 명상적인 삶을 지향하여 세상과 떨어져서 고독한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⁷⁾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사에 대한 기록은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의 저서 『안토니우스의 생애』(360년)가 시초이며, 일반적으로 기독교 수도생활은 안토니우스(Antoinius)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305년경 이미 이집트 북부의 안토니우스 주변에 많은 수도승들이

4) 가나안 교인이란 교회에 안 나가(가나안의 역순)는 교인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5) 엄두섭, 『수도생활의 향기』(서울: 보이스사, 1979), 595.

6) 강안일, “새로운 수도원운동-본회퍼의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7집(2017), 10.

7) Kenneth S, Latourette, 윤두혁 역, 『기독교사(상권)』(서울: 생명의말씀사, 1979), 354.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파피루스가 있다. 또한 320년에는 파코미우스(Pachomius)가 이집트 남부에 설립한 수도원이 있었다. 그 이전에도 시리아를 비롯하여 팔레스틴, 소아시아, 갈리아 등지에 수도승들이 있었다. 실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도승 영성의 전사(前史)”가 있었고, 엄밀히 보면 구약성경의 아모스, 호세아, 예레미야 등 예언자들 역시 수도사들의 은수(隱修) 생활의 흔적이 있었다.⁸⁾

넓은 개념으로 수도원을 조망하면 수도원은 기독교 이전 고대 사회의 인도, 유대교, 그리스, 이집트 종교 등에 기원을 두고 있고, 기독교 수도원 운동은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모든 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발표한 이후 융성한 시기를 맞았다. 6세기 들어 동서방 교회의 수도원운동이 깊이 뿌리를 내렸고 11세기와 12세기에 수도원 개혁 운동이 클루니(Cluny) 수도원과 베네딕트(Benedict) 수도원에서 전개되었다. 13세기는 수도사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수도원운동의 전성기였고, 종교개혁 시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발생한 예수회 운동도 수도원운동의 외연이었으며 로마 가톨릭교회의 ‘반종교개혁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였다.⁹⁾

카를 프랑크(Karl Suso Frank)는 금욕과 기독교 수도원운동의 기원을 연계하여 이렇게 언급한다. “기독교 수도원의 시작은 기독교 금욕에 숨겨져 있다. 기독교적 삶과 교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설명이 들어 있는 신약 성경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금욕적 존재 방식으로 살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불확실한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금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주장과 설명이 들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¹⁰⁾

8) 허성석, 『수도영성의 기원』(서울: 분도출판사, 2018), 23-25.

9) 유정우, “수도원운동의 역사적 고찰과 신학적 이해”, 『논문집(평택리뷰)』(평택: 평택대학교, 1992), 362-383.

10) Karl Suso Frank, 최형걸 역,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서울: 은성, 2018), 15. 이 책에서는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를 체계성 있게 소개하였으며 비판적인 관점과 아울러 바람직

수도원운동은 세상이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고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을 때 신앙의 회복과 갱신을 위한 신앙운동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공동체를 주도하는 교회가 부패하거나 탈선할 때, 뜻 있는 선각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수도원을 결성하고 제자 수도사들을 양육하여 세상에 파송했다는 점이다. 고대의 성자 안토니우스로부터 시작하여 파코미우스, 마르티아누스(Martianus), 베네딕트, 클루니 수도원 창시자 윌리엄(William), 씨토(Citeaux) 수도원을 세운 로버트(Robert), 이 외에도 도미니크(Dominique), 프란시스(Francis) 등 우수한 인물들의 활동은 한결같이 영성, 경건, 구제, 훈련, 개혁, 사회를 향한 헌신 등 세상을 향한 염광(鹽光)이라는 모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¹¹⁾ 이들이 전개한 사역의 범주는 결코 은둔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침투였고 확산이었다. 이러한 수도원운동은 기성 교회들을 바른 길로 선도했으며, 개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했다.

중세 말 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 역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수도회에서 스승 스타우피츠(John Staupitz)로부터 철저히 수도자로서, 또한 성경학자로서 훈련을 받았다. 루터의 성경에 입각한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의 개혁정신과 비타협적 확고한 의지는 일면 견실한 수도사의 생활이 뿌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²⁾ 캐논(William R. Cannon)은 수도원운동의 폭넓은 활약에 대해, 이 운동 자체는 신학뿐 아니라 실

한 수도원적 삶을 제시하였다.

11) 김창의, 『중세수도원제도사』(서울: 경인문화사, 1970), 71-95, 176-217.

12)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통하여 차츰 신학적 역파를 이룰 수 있었으며 개혁자로서 성장하는 단초가 되었다. 그가 1518년 초에 '탑체함'을 한 배경도 그의 수도사적 기질에 연원이 있었다. cf. Alister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Oxford: Basil Blackwell Inc., 1989), 72-74; 안수강, "루터의 95개조 논제와 칭의사상(稱義思想)", 『역사신학논총』 제20집(2010), 37-57.

제 현실에 적용된 기독교의 선구자적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다고 높게 평가했다.¹³⁾ 이러한 정신은 동서양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초월하여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 속에서도 그 태동과 동향이 유사한 맥락으로 전개되고 있다.

2.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역사

한국에서는 수도원운동의 맥을 잇는 운동들이 1930년대부터 태동했다. 이덕주는 19세기 말에 시작된 한국 개신교회는 1930년대 중반에 부흥의 시대를 열었지만 타락하고 세속화된 제도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이렇게 언급하였다. “교파주의, 교권주의, 배타적 교리주의, 진보와 보수 간 신학적 갈등과 더불어 지방색이 가미된 파벌주의까지 작용하여 1934-35년 적극신앙단 사건을 필두로 경중노회 사건, 신편찬송가 사건, 여권옹호 필화 사건, 아빙돈 단권 성경주석 사건 등이 일어났다.”¹⁴⁾ 이때 교회의 회개와 자성을 촉구하는 광야의 소리가 일어났고 김교신의 무교회주의, 최태용의 복음교회, 동석기와 최상현의 환원운동(그리스도의 교회), 이용도의 예수교회, 송태용과 변남성의 하나님의 교회 등이 등장하였다.¹⁵⁾ 일종의 기독교 ‘소종파’(sectarian) 운동으로 볼 수 있으며, 수도원 운동이었던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지라도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의 반동으로서 제도권 밖에서 일어난 수도원운동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물론 유념할 점으로서, 당시 소종파 운동은 대체적으로 기독교의 전통적 복음이나 개혁정신과는 결을 달리하는 속성을 보여주었

13) William R. Cannon, 서영일 역 『중세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24.

14) 이덕주,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맥락”, 『기독교사상』(2015년 3월호), 30-38.

15)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402-450.

16) 이덕주,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맥락”, 32.

고 교세가 지속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소규모의 단체로 전락하여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¹⁷⁾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개신교 수도원의 기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물론, 수도원은 그 존재 방식이 대부분 은둔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아직 파악되지 않은 수도공동체도 있겠지만 이세종, 이현필, 김금남 등으로 이어지는 동광원을 중심으로 한 수도원 계보를 무시할 수 없다. ‘이공’으로 알려진 이세종은 1877년 7월 1일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등광리에서 태어나 증으로 살면서 일군 재산을 이웃과 나누는 선행을 베풀었다. 그의 출생지인 전남 화순을 방문하면 지자체에서 설치한 ‘성자 이세종’이란 인상 깊은 표지판을 접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명상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세상 영광은 취할 것이 없다. 세상 영광은 취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여라. 그러면 산다. 하나도 염려할 것 없고, 죄만 누우질 뿐이다. 산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우거진 풀잎을 봐도 알 수 있다. 세상 법이 아니면 세상 악마들이 너를 몇 번이고 욕심내어 살해했으련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하나님 명령으로 법이 너를 보호했으니, 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너울거리는 풀잎 하나라도 하나님의 수고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너울거리는 풀잎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구나¹⁸⁾

이세종의 뒤를 이은 이현필은 1913년 전남 화순군 도암면 권동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일본 무교회주의 신도로부터 전도를 받고 기독교에 입교하여 1927년 호남 영성의 대부 이세종을 찾아가 5년간 성경공부를 하

17) cf. 안수강, “1930년 전후 한국교회 신비주의 고찰—신비주의 발흥과 장로교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07집(2018), 105-106.

18) KIATS 편, 『이세종의 명상 100가지』(서울: KIATS, 2011), 58.

였다고 전해온다. 1938년에 결혼하였으나 부인이 사산한 것을 계기로 “동정을 지키라”라고 가르쳤던 이세종의 훈계를 따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해혼을 선언한 후 1940년에 출가하여 기도와 성경공부에 몰두했으며 금욕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¹⁹⁾ 그의 설교문 한 대목에서 그가 평생 지향한 수도자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자족의 정신, 헌신하는 인간상, 이타적 사랑을 강조했다.

많이 받으면 만족하고, 적게 받으면 부족한 생각이 고쳐져서 많이 바치면 만족하고, 적게 바치면 부족하여지기 바랍니다. 적은 것 받아지면 큰 것 받을 대로만 달려가는 마음이 작은 수고에서 큰 수고 자리로 옮겨가지고, 사랑을 받을 자리에서 떠나 사랑하는 자리를 찾아가기 바랍니다. 감사받은 주려는 것입니다. 받으려는 것은 미움입니다. 각자가 사랑 없다는 탓을 하나 자기가 주려는 사랑이 없어서 걱정한 것이 아니고, 받을 사랑 없다는 말뿐입니다.²⁰⁾

3.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선행연구

한국 교회사 안에서 개신교 수도원운동은 어떻게 연구가 추진되어 왔는가? 선행연구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천주교 관련 연구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수도원들과 상당수의 각 지역별 수도원까지 섭렵했을 정도로 많은 편수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 수도원에 관해 발표된 논문은 불과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희소하다.

주목할 만한 연구가 몇 편 있기는 하다. 백용기(2005)는 “한국 디아코니아자매회의 역사와 영성신학”²¹⁾이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 개신교 최초

19) 김재현 외 엮음, 『한국기독교 성지순례 50』(서울: KIATS, 2019), 535.

20) KIATS 편, 『풍요의 시대에 다시 찾는 영적 스승』(서울: KIATS, 2014), 41.

의 여성수도원인 ‘한국 디아코니아자매회’(1980년 창단)의 삶과 일치된 영, 삶 속에서 실현되는 영성, 나눔과 섬김, 생명살림의 영성을 다루었다. 2006년에는 “한국 디아코니아자매회의 사회봉사 신학”²²⁾을 주제로 이 단체의 사회봉사활동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삶의 영성, 섬김의 신학, 공동체 신학, 복지선교 등의 개념을 정리했다. 김홍일(2015)은 “한국 교회의 문제와 수도원 영성의 재발견”²³⁾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새로운 수도원운동이 증가한 배경으로 공동체 붕괴의 가속화, 교회의 사회와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 목소리 상실, 영성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교회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공동체 마련 등을 들었다. 이덕주(2015)는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맥락”²⁴⁾에서 1930년대 이용도와 예수교회, 이용도로부터 시작하여 이호빈, 유재현, 박경룡, 전진으로 이어진 수도원 전통을 북한지역을 배경으로 형성된 ‘북방영성’과 해방 직후 남한에서 전개된 ‘남방영성’으로 대별하여 소개했다. 배덕만(2015)은 “한국개신교회와 수도원운동”²⁵⁾에서 현 개신교 계열 수도원운동과 관련하여 성찰할 점으로 다양한 영성의 공존, 한국교회의 대안적 영성운동, 온전한 형태의 수도원 부족, 체계적 연구와 전문가 부족 등을 들었다. 2016년 간행된 논문에서 이상대는 한국 개신교 수도생활을 전반적으로 논했는데, 13개의 수도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물신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로 이해하여 전통적인 수도원의 3대 정신인 청빈, 청결, 순명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기보다는

21) 백용기,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의 역사와 영성신학”, 『신학사상』 제129집(2005), 29-66.

22) 백용기,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의 사회봉사 신학”, 『신학사상』 제132집(2006), 231-257.

23) 김홍일, “한국교회의 문제와 수도원 영성의 재발견”, 『기독교사상』 제675집(2015), 46-53.

24) 이덕주,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맥락”, 30-38.

25) 배덕만, “한국개신교회와 수도원운동”, 『기독교사상』 제682호(2015년 10월), 51-60.

지나치게 과거의 가톨릭 독신 수도원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보여준다.²⁶⁾ 이 외에 기독교 주류 그룹에서 벗어난 수도원 계열을 분석한 논문들도 더러 있다. 최중현(2002)은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공방과 신현식의 행보를 다룬 “김백문 사후(死後)의 이스라엘 수도원”²⁷⁾을 고찰했으며, 서재룡(2011)은 ‘동광원’을 설립한 이현필 연구를 통해 교회의 기득권 세력의 횡포에 대한 저항, 신비주의 영성과 철저한 금욕주의의 삶을 다루어 “한국교회사 속의 수도원설립자 이현필의 생애”²⁸⁾를 발표했다.

이 논문들 가운데 백용기는 여자 수도원의 염광(鹽光) 사역과 영성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이덕주는 한국수도원 계보의 역사적 배경과 기원을 논했다는 점에서, 김홍일은 교회의 성화 과제에 뜻을 두어 수도원운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배덕만은 현 수도원운동의 약점들과 부족한 면들을 성찰했다는 점에서 공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개신교 관련 수도단체들을 총체적으로 다룬 사례는 없으며 유형별로 분석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씨알수도회’, ‘은성수도원’, ‘예수원’, ‘모새골’, ‘나실인수도원’, ‘디아코니아사매회’, ‘동광원’, 두레수도원 등 개신교 관련 수도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형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며 이 연구에 이어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6) 이상대, 『한국 개혁교회 수도생활의 전망과 방향 연구』(서울: 서강대 신학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2016).

27) 최중현, “김백문 사후(死後)의 이스라엘 수도원”, 『한국신종교학회』 제6집(2002), 289-323.

28) 서재룡, “한국교회사 속의 수도원 설립자 이현필의 생애”, 『인문과학논집』 제22집(2011), 219-254.

III.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유형론적 분석

이제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유형별 분류 작업을 통해 각 유형별 수도원이 갖는 강점과 개혁해야 할 점, 그리고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개신교 수도원운동이 과연 이상적이며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솔한 진단과 각성 역시 필수적인 과제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은 설립 이념과 목표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여 의미를 논할 수 있지만, 각기 다양한 영성이 공존하고 모델이 될 만한 이상적인 수도원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유형화 연구의 유의성과 필요성을 살펴본 후 개신교 수도원의 유형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유형화 연구의 필요와 유의

유형화 연구에는 항상 지나칠 정도로 단순화하는 위험성이 뒤따르며, 또한 어떤 기준으로 유형화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실제적으로 일종의 블랜딩 그룹에 들어가는 수도원, 기관, 운동 등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리차드 니버(H. Richard Niebuhr)가 그의 명저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그리스도와 문화의 다섯 가지 유형분석을 통해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했던 것처럼, 수도원의 유형화 역시 매우 유용한 이해와 담론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리차드 니버는 유형론적 방법이 발생론적 방법에 비해 갖는 강점을 다수의 원칙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에게는 혼란스러울 정도의 다양한 원칙과 그보다 더 다양한 역사적 개체들만 남게 된다. 유형

론이란 이처럼 많은 요소를 여러 가문으로 나누어 각각 독특한 특징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론이다.”²⁹⁾

리차드 니버의 경우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는데, 그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섯 번째 유형, 즉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가장 바람직한 혹은 발전적인 유형으로 이해한 것으로 평가한다. 가령, 김영한은 변혁의 유형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과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신앙과 문화와의 바른 관계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변혁’의 유형이 성서적이며 기독교 신앙이 지니는 문화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범주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변혁의 유형 중에서 바울과 요한의 사상과 어거스틴의 사상을 더 발전시키고 있는 사상이 칼빈의 문화관이요, 이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 칼빈주의의 문화이해이다.”³⁰⁾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문화의 다섯 유형 전체가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신국원은 그의 저서에서 다섯 번째 유형이 갖는 여러 약점을 분석하면서 니버가 이 모델을 지지했다는 전제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는 제도권에 있는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와 문화를 연결시키는 ‘와’(and)에 주목하면서, 종합이나 대립유형 등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변증법적 긴장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³¹⁾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 논문에서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 개신교 수도원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드러나는 나름의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한국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를 설정하여 설명한다면 수도원을 유형화해야 할 의미가 더욱 명료해질 것이다. 수도원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분석하는

29) H. Richard Niebuhr, 홍병룡 역, 『그리스도와 문화』(서울: IVP, 2007), 47-48.

30) 김영한, 『한국기독교 문화신학』(서울: 성광문화사, 1992), 135.

31)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서울: IVP, 2002), 93-94.

일은 얼핏 자의적인 구분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 전통적으로 수도원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수도사의 사역 유무, 수도원과 교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이야기 서술 등을 분석하면서 공통의 분모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수도원의 유형분석 과정 전체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개신교 수도원이 태동하는 과정과 종교 공동체가 어떤 과정으로 자리매김해 왔는지 추적해볼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유형화는 일부 단순화와 논리적 비약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도원을 이해함에 있어 체계적인 분석과 반성적 성찰을 위한 좋은 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수도원의 유형화 분류 및 연구가 주는 유의한 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시히테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수도원 존립가치와 명료성을 추구할 수 있다. 수도원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이덕주와 배영만은 한국 수도원운동을 두 부류로 구분하였다. 이덕주는 ‘북방영성’(이용도를 비롯한 백두대간과 금강산의 계보)과 ‘남방영성’(이세종을 비롯한 동광원, 호혜원 등) 등 두 계보로 수도원 진영을 구분하였고, 배영만은 토착적 수도원(이용도→이세종→박경룡→나운몽)과 유럽식 외래적 수도원(대천덕→엄두섭→안병무)의 흐름 양자로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수도원운동을 계보적으로 명료화한 면이 있지만, 현재의 여러 수도원운동들을 파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측면이 있어 구체화된 현상적 유형화가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윤리 차원에서 시대에 적합한 수도원운동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볼 수 있는 유의성이 있다. 역사라는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연구는 미래적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개신교의 수도원운동을 보다 건강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유형화 작업을 통해 강점과 단점들을 분석해야 하며 이로써 한국 개신교

의 수도원운동이 나아갈 방향성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다.

셋째, 수도원운동이 갖는 사회적 포용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익이다. 현재 한국 기독교 생활공동체 운동 가운데는 수도원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수도원적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³²⁾ 예를 들면, 최근 브루더호프(bruderhof) 한국 공동체가 조직되는 등 수도원적 모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발전적인 형태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형론적 분석 작업은 수도원운동이 우리 사회에 제시할 기독교윤리학적 취지를 구축하는 일에 유익한 지침을 제시해줄 수 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파악한 한국 개신교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수도원 혹은 수도회 계열 단체들로 ‘씨알수도회’, ‘은성수도원’, ‘다일공동체’, ‘모새골’, ‘나실인수도원’, ‘예수원’, ‘디아코니아자매회’, ‘동광원’(남원 분원, 화순 분원), ‘라브리공동체’, ‘삼무곡수도원’, ‘예수영성훈련원’, ‘카리스마 타수도원’, ‘뫼(몸+마음) 살리기 수련원’, ‘아침하늘 영성훈련원’, ‘토마스 아퀴나스 영성원’, ‘가락제영성원’, ‘고려수도원’, ‘맑음고요 예수영성원’, ‘아가페 크리스찬치유센터’, ‘예수마을’(수도교회), ‘하늘길수도원’, ‘두레수도원’, ‘광림수도원’ 등이 있었다.³³⁾ 이 수도 단체들의 제 유형별 발흥 배경과 동인, 추구하는 모토와 시대적 사명, 운영의 방향성과 목적의식, 지향하는 가치관, 규율과 조직체계, 주요 행사들, 개혁 의지, 사회와의 관련성 및 공헌도 등을 분석하며 강점들과 약점들을 규명해보았다. 개신교 모든 수도원들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다양한 수도원의 역사와 현황에 기초하여 계시히테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32) 본 연구 과정에서 파악한 많은 영성, 생활공동체들(보나팜, 은혜, 오두막, 민들레, 열방, 라비공동체 등) 외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와 제도권에서 자발적으로 분리되어 독신, 청빈, 금욕을 추구하는 수도원운동과는 구별된다.

33) <https://blog.naver.com/youngsung1440/>(접속일자: 2021년 8월 10일)

할 바람직한 윤리적 방향성을 제시할 기초 작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한국 개신교 수도권 단체의 유형화 및 분석

문헌 및 관련 자료 분석, 현장 탐방(관련자 인터뷰)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분석했으며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단체들은 제외하였고, 수도권운동의 성격상 널리 알려지지 않는 않았지만 일정한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전체 연구 대상 수도권들을 특성상 세 그룹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고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개신교 수도권 단체의 유형별 분류

유형	단체/시설명	소재지	성격
1	나실인수도원	충북 옥천군 안내면	합동개혁
	대한수도원	강원도 철원군	수도과 영성센터
	동광원 남원분원	전북 남원시 대산면	수도원, 사회봉사
	동광원 화순분원	전남 화순군 도암면(분원)	수도원, 사회봉사
	디아코니아자매회	전남 무안군 삼향면(분원)/ 충남 천안시 병천면(본원)/중단	수녀원, 사회봉사
	시흥영성수련원	경기도 시흥시	예장 합동개혁
	예지수도원	경북 성주군	개인 수도권
	용문산수도원	경북 김천시	수도공동체
	충주봉쇄수도원	충북 충주시	봉쇄수도원
2	다일공동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자연치유, 다일영성프로그램
	두레수도원	경기도 포천시	수도원/공동생활
	떼제서울공동체	서울 도봉구	떼제공동체 서울 지부
	모새골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영성센터
	예수원	강원도 태백시	수도 공동체

3	고려수도원	서울시 도봉구	영성치유센터
	광림수도원	경기도 광주시	광림교회 수도원
	라브리공동체	강원도 양양군 서면	치유와 영성센터
	맑음고요예수영성원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인천반석교회
	뫼(몸+마음) 살리기 수련원	전북 임실군 신덕면	진달래교회
	삼목공수도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치유와 영성센터
	가락제영성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찬양영성센터
	씨알수도회	서울시 중구	도심 속 수도공동체
	예수마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도교회 수도원
	예수영성훈련원	대구시 수성구	평화교회 수도원
	상수의집	제주도 서귀포시	아리랑풀이
	예향원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치유와 영성센터
	은성수도원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중단	장신대 신대원생 영성수련원
	은진영성아카데미	충북 청원군 현도면	왕대리교회 수도원
	카리스마타수도원	경남 거제시/ 중단	정기적 수도모임
	토마스 아퀴나스 영성원	경기도 가평읍 북면	치유와 영성센터
	필그림하우스	경기도 가평군	지구촌교회
	하늘길수도원	강원도 홍천군	치유와 영성센터

위의 수도원들 혹은 단체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일차적 기준은 그 형태와 기능에 두었다. 구체적으로 “형태와 기능에 있어 역사적 수도원 전통을 잇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수도사의 사역 유무와 기존 교회와의 관계 설정에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자는 은둔형 수도원, 공존형 수도원, 센터형 수도원으로 명명하여 세 그룹으로 유형화하였는데 각 유형별 특성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형 ①: 은둔형 수도원(전통적 수도원형)

이 유형은 기존 교회에서 이탈하여 개인적으로 혹은 소수 공동체를 형

성하여 수도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 양태로 볼 수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로 보면 이분법적 분리를 추구한 단절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봉쇄 수도원’을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부분 수도사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은수를 하지만 외부인들이 방문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열린 형태이기도 하다. 충주의 봉쇄기도원(강문호 수도사)처럼 외부와 단절된 곳도 있지만 그 외의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외부인들의 방문을 허용하여 개방성을 갖는다. 예컨대 동광원,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대한수도원, 나실인수도원, 용문산수도원, 충주봉쇄수도원, 떼제서울공동체, 시흥 영성수련원, 예지수도원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서원한 수도사들이 기도와 노동, 영적 훈련을 목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외부인들을 위해 영성 훈련, 수련회, 기도회 등을 주관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이 유형의 핵심적인 특징은 정예화된 수도사들에게는 전적 헌신을 요구하며 공동생활을 통한 결속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 유형은 이천여 년을 내려온 기독교 전통 속에서 가장 강한 ‘영성 공동체’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곳에서도 가장 강력한 종교공동체로서 헌신의 의미를 부각시키며 그 영향과 파급력은 지대하다.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에 활동하던 이세종, 이현필, 최홍종 등의 족적은 한국교회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그 전통을 잇고 있는 은둔형 수도원은 오늘날도 전국 각처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며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기독교 영성을 지속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은둔형 수도원 형태는 중세 수도원들이 지녔던 약점처럼 폐쇄된 공동체로서 사회에서 기인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실제, 깊은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졌던 인물

들이 제도권 교회의 입장에서 이단성 시비를 야기할 정도로 위험한 주관주의나 신비주의에 치우친 편향성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용도의 신비주의나 나운몽의 용문산 수도원은 헌신된 수도사들의 기도와 전도, 부흥 운동에 기여한 바 크지만, 장기간 이단 시비에 휘말린 역사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예방과 약점 보완을 위해서는 건전한 신앙적 협의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제도권 교회와의 대화 및 지속적 관계 정립이 요청된다.

감리교 목사로는 은퇴 후 충주 봉쇄 수도원을 설립하여 수도사로 서원한 강문호 목사는 수도원 창립 다섯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걸음대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신호를 보며 갑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없는 데 가지 않고, 신호가 떨어졌는데 머물지도 않을 것입니다.

2. 부추 없이 만나만.

땅에 있는 부추 은근히 돈을 바라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기다릴 것입니다.

3. 완성 없이 과정만.

이태리 퀴린 성전을 가보았습니다. 600년 동안 지어왔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었습니다. 100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겸손할 것입니다. 죽기까지 완성 없이 과정이라고 여기고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 일할 것입니다.

4. 소유 없이 헌신만.

내가 죽으면 사라지는 수도원을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일하는 수도원을 세울 것입니다.

5. 소리 없이 빛만.

해는 수만 년 동안 소리 없이 빛만 주고 있습니다. 그 빛은 70억의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수만 년 동안 그렇게 큰일을 하면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소리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³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용문산 수도원의 수도원 설립 배경과 목적은 수도원에서 발행한 사료집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1950년 6.25동란 이후 용문산 기도원에서 발원한 성령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용문산 기드온신학교에 입학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이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학생들이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운몽 교장선생님께 개신교 수도원 설립을 간청하여 수도원이 설립되었고, 오로지 복음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한 구국운동과 구령운동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수도원의 표어는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이다. 수도원의 사명은 (1) 傳道(전도), (2) 教育(교육), (3) 奉仕(봉사)이다. 그리고 수도정신은 (1) 淸貧(청빈), (2) 淨潔(정결), (3) 順命(순명), (4) 謙遜(겸손)이다. 끝으로 수도생활은 (1) 祈禱(기도), (2) 讀經(독경), (3) 默想(묵상), (4) 勤勞(근로)이다.³⁵⁾

2) 유형 ②: 공존형 수도원(일반인 참여 공동체형)

이 유형에 속하는 수도원은 정예화를 이루어 헌신하는 수도사들만의 공동생활을 넘어서서 일반인들과 영성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기존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교섭하면서 수도원을 찾는 신자들에게 경건한 삶을 훈련시켜 다시 교회에 파송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현실적 한계를 인지하고, 건실한 기독교 신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도원 공동체를 구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은 개인 영성과 함께 공동체의 영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즉 제한된 서원 수도사들의 폐쇄적인 활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34) 강문호, 『천국을 미리 사는 봉쇄 수도원』(서울: 지성소, 2018), 16-17.

35) 용문산수도원 편, 『용문산수도원60년』(서울: 기독교대안감리회 애향숙, 2019), 10-11.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영성에 강조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수도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곳도 있지만 상주하는 수도자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영성 수련에 힘쓴다. 가령 태백의 예수원, 두레수도원, 다일공동체, 모새골 등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청계천 빈민운동을 이끈 김진홍 목사는 두레수도원을 설립했다. 그는 교회에서 은퇴한 후 동두천에 세운 수도원에서 신자들의 공동생활을 인도하고 몽골광야 훈련, 노동, 금식, 치유 프로그램 등을 실천하여 성도들의 전인적 영성 훈련을 추구하고 있다. 성공회 소속 대천덕 신부로부터 시작된 예수원은 일반인들의 공동체 생활을 인도하면서 기도와 노동을 공유하기 위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고, 최일도 목사의 ‘밥과 운동’으로 유명한 다일공동체는 설곡산에 수도원을 세워 공동생활과 함께 ‘다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모새골은 영락교회와 주님의교회를 담임하였던 임영수 목사를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로서 역시 공동체 영성 생활과 노동을 중시하며 모새골 공동체교회를 통하여 영성훈련과 ‘일상’을 통한 신앙훈련을 추구한다. 모새골을 소개한 책자에는 모새골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모새골은 시작부터 매해 청년·평신도·목회자 영성학교를 열었으며, 그 외에도 3박4일의 모새골 일상에 참여하는 영적 여정을 제공하고 있다. 을지대학교 강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던 예배공동체는 2012년 시작과 함께 모새골 교회로 새로이 태어나 모새골이 지향하는 바를 교회 현장에서 구현하기 시작했다. 2017년 10월 22일에는 모새골 공동체와 모새골 교회과 ‘모새골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모새골은 영성학교의 역할과 함께 모새골 공동체교회의 생활공동체 역할을 겸하기 시작했다. 모새골은 모새골영성공동체, 모새골공동체교회, 모새골아카데미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아름다운 정원지기로 참여하는 개신

교 영성 공동체이다.³⁶⁾

공존형 수도원 유형은 전형적인 개신교 신학적 성향에 밀접하면서도 수도원의 태동 배경과 정신을 고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이 유형의 유의한 점은 서원 수도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공동생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부설 형태의 교회 참여 및 소속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수도생활과 영성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유형의 수도원들이 갖는 약점은 공동체의 목적과 가치, 운영 방법이 설립자의 철학과 사회적 영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적 정신계승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레공동체, 다일공동체, 모새골의 경우는 설립자가 생존해있고 사회적 영향력에도 큰 변화가 없지만, 예수원의 경우 대천덕 신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운영상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온다. 따라서 수도원의 정신과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준비와 후계자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제도권 교단이나 교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협력해야 한다.

3) 유형 ③: 훈련센터형 수도원(단기 프로그램형)

이 유형은 한국교회 수도원 유형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수도원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영성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종의 훈련센터에 해당된다. 이 유형의 수도원은 상주하는 수도사나 수도공동체 없이, 정기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영성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물론, 일시적인 프로그램조차 없는 ‘수양관’ 양태의 체제를 유지하는 수도원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광림수도원은 개인의 신앙

36) 모새골 편, 『모새골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안내 소책자), 1-4.

적 체험만 강조하던 기도원의 성격을 넘어 공동체적 신앙을 지향하기 위해 수도원이라 명명하였지만, 어떤 훈련 프로그램도 없이 운영되므로 기존의 기도원 모양새와 별반 차이가 없다.³⁷⁾ 그러나 대부분의 수도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치유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 탐색한 수도원들 중 절반 이상이 이 유형에 속해 있다. 개인기도와 중보기도 프로그램 외에도 찬양 위주의 치유 프로그램(가락제수도원)이나 부흥회식의 집회, 자연치유 훈련, 침묵 훈련(삼무곡 수도원)과 관상기도 훈련, 성경공부를 통한 치유(라브리공동체), 개인기도의 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몇몇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씨알수도원은 개신교 목사들이 도심에 세운 영성 훈련의 장이다. 개신교 목사와 신학생 10여 명으로 구성된 씨알수도회가 세운 ‘명상원’으로서 ‘예수의 진리(도)가 꽃피우는 정원’이라는 뜻으로 ‘예수도원(道園)’이라는 이름으로 기도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은 개신교 영성 훈련의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목적을 추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이슬람, 가톨릭, 불교, 원불교의 신도들도 함께하는 범종교적 영성 모임이라는 점이다. 모든 종교들이 함께 어우러진 영성 공동체를 이루어야 성숙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래서 제 종교가 공존하는 영성적 삶을 추구한다.

뫼(몸+마음) 살리기 수련원은 진달래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으로 몸과 마음의 참된 건강을 통해 자기완성을 지향하는 ‘데카그램 프로그램’ (‘에너지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에 ‘자기완성’이 추가됨)을 통한 훈련을 진행한다. 교회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기독교 영성의 근본 목적보다는 데카그램을 통한 자기완성에 가치를 둔다.

37) 배덕만, “한국개신교회와 수도원운동”, 51-60.

상수의 집은 상담학을 전공한 이종현 목사가 양평의 센터를 제주도에 이주해 세운 수련원으로 ‘아리랑풀이’라는 그룹치유(집단상담)와 선(禪) 치료를 통해 전인적 건강을 추구하는 훈련장이다. 기장 교단 목사이지만 종교나 교단 구분 없이 수련생들을 모집하며, 기독교 신앙에 기초를 두지만 그룹상담적 기법으로 자기를 대면하고 자기완성을 이루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수도원적인 성격보다는 훈련원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은성수도원은 원장 엄두섭 목사가 수도사로 살 것을 서원하고 1979년에 수도사적 영성 훈련을 위해 관상기도에 전심하는 처소로 설립했다. 그러나 엄 목사의 병세가 악화되어 1997년 수도사로서의 생활을 중단하고 수도원을 장로회신학대학교에 기증하였고 한동안 장신대 학생들을 위한 경건훈련원으로 사용되었다.³⁸⁾

지구촌교회에서 운영하는 필그림하우스는 영성을 지향하는 센터라는 점을 자부한다. “지구촌 교회 필그림하우스는 기독교 영성 센터입니다. 필그림하우스는 기도원이 아닙니다. 필그림하우스는 전통적 수양관도 아닙니다. 필그림하우스에는 수도원적 언어들이 사용되지만 수도원도 아닙니다. 필그림하우스는 수도원의 지혜를 빌려온 현대적인 기독교 영성센터입니다.” 실제로 필그림하우스는 천로역정 세미나³⁹⁾, 순례영성의 길 세미나, 필그림 특강 등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유형의 수도원들은 교회나 개인이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만, 정식 수도사나 헌신자들이 상주하는 공동생활은 제공되지 않는 시

38) 이러한 경우는 신학대학과 수도원(영성훈련)이 협력한 독특한 사례에 해당된다. 은성수도원은 이첩게도 현재 진입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39) “천로역정 순례길은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을 중심으로 한 회심에서 천국까지의 인생 여정을 조형물과 건축물로 형상화하여 조성된 길입니다. 천로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순례 여정 가운데 전도자, 신실, 절망의 거인이라는 인물들을 만나고 십자가, 뷰티풀 하우스, 겸손의 골자기, 허영의 시장 등 여러 처소를 지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와 인생에 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필그림하우스 소개 책자 중에서)

시스템을 취한다. 따라서 현대인들을 위한 대중적 맞춤형 수도원 양태라고 간주할 수 있지만, 서원하여 헌신한 수도사들이 공동의 삶과 노동을 통해 깊은 영성의 수행을 추구하는 전통적 수도원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대중화된 수련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소수의 수도사들에게 제한되던 수련의 기회를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대중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비록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수도원에서의 공동생활을 체험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전형적인 예배나 소그룹 만남에서 체득할 수 없는 종교적 수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러한 센터형 수도원들은 대부분 정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분주한 현대인들에게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물질 중심 문명 속에서 욕정과 타락, 실패와 절망으로 의기소침한 현대인들에게 세상의 삶에서 잠시나마 이격(離隔)하여 휴식을 취하며 안식과 영적 수련을 도모하고 재충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교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영성수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강점이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논한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기독교윤리적인 면에서 각 유형마다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인 은둔형은 가장 전통적인 수도원적 양태로 볼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이 강하며 청빈과 순명이라는 가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만인제사장직 입장을 취하는 개신교의 신학적 관점을 고려하면 수도사의 우월적 지위 부여 가능성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둘째 유형인 공존형은 대중적인 영성 훈련의 길을 제시하면서도 수도원적 고유성을 담보하고 있

다는 점에서 가르침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실성이 있으며 기독교윤리의 실천적 의의를 담보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인 훈련센터형은 개신교 대다수의 기존 시설과 제휴하여 목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고 내용적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전파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별히, 주로 이집트 사막에 설립되었던 동방교회 수도원들이 서방교회로 이식되면서 어떻게 수용되고 성장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좀 더 개신교적 특성을 갖추는 수도원운동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수도원운동은 동방수도원에서 서방수도원으로 전개되었지만, 이제는 개신교 수도원으로 전이해 가는 변형적 발전이 필요한 때에 직면해 있다.

3.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기독교윤리적 함의

전통적으로 수도원이 주는 윤리적 영향은 청빈과 순명의 삶이다. 그런데 교회사에서 처음 시작된 동방교회 사막교부들의 수도원은 개인주의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금욕주의적 경향이 농후했다는 점에서 보편화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서방교회로 수도원이 전이되면서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장될 수 있었다. 물론, 베네딕트의 수도원 규율 제정과 확장 정책 등이 작용했지만 수도원운동이 내용적인 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수반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금욕만을 강조하는 수동적 차원이 아니라 수도원에 정주하면서 기도와 아울러 일정한 노동이 규율화 되었고 정교한 노동윤리가 형성되었다. 곤잘레스(Justo L. González)는 그 연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베네딕트의 규율집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대신에 비록 엄격하기는 하지만 지나치지 않은 질서와 규범을 통한 지혜로운 수도생활을 추구한다. 사막에 살던 많은 수도사들이 빵, 소금, 물만 먹고 생활했는데, 베네딕트는 자기의 수도사들이 하루에 두 끼씩 올바른 식사

를 하게 했고, 두 가지 이상의 조리된 음식을 제공했다. 이따금 싱싱한 과일과 채소도 공급했다”⁴⁰⁾ 서방교회의 수도원은 소극적인 자기 부인과 금욕의 훈련을 넘어서서 공동체 생활을 통한 노동윤리와 이를 통한 자선과 복음전파라는 선교의도를 품고 있었으며, 그 결과 대부분 교회의 지도층 세력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수도원의 공동체 생활은 개인 중심의 좁은 의미의 금욕이나 영성훈련을 뛰어넘어 세상과 사회에 침투하여 생활윤리를 지향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교회의 형편은 서방교회의 수도원이 태동하던 시기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의 문제점들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빈곤은 여전히 지구촌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난제들 중의 하나다. 지구촌의 당면 과제들 중 상당수는 부와 빈곤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만 보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백신 보급 문제에 있어 가난한 나라들은 접종률이 미미하지만 부유한 선진국들은 부스터샷이라는 3차 접종까지 시도하여 논란과 빈축을 사고 있다. 신앙적으로 볼 때 풍요한 나라들은 빈곤에 처한 나라들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역사를 고찰해보면 부유한 나라들이 빈곤한 나라들의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로날드 사이더(Ronald J. Sider)는 빈곤 국가들에게 부유한 국가들이 짐을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일곱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여 시장 경제, 국제 무역, 매우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 천연자원과 환경, 식량의 소비와 수입, 제 3세계 내의 다국적 기업, 차별과 전쟁 등으로 설명한다.⁴¹⁾ 그런데 사이더가 제안한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실천적인

40) Justo L. González, 엄성욱 역, 『중세교회사』(서울: 은성, 2012), 29.

41) Ronald J. Sider, 한화룡 역,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서울: IVP, 2008), 236.

방안 중에서 공동체 생활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동체 생활의 핵심이 빈곤을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공동체 생활이 빈곤문제를 해결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도원이나 수련원 등 기독교인 공동체 조직이 갖는 의미를 여기에 투사해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생활수준은 다양하다. 그러나 거의 모두 복미 평균 가정보다 훨씬 검소하게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시카고의 레바 플레이스 공동체의 경우 여러 해 동안 시에서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식사를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상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조용히 사회의 풍요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놀라운 대안을 제시한다.”⁴²⁾

수도원 생활은 다양성을 갖지만 기도, 영적교제, 훈련 등을 주력사역으로 인식한다. 기도 생활과 같은 영적 훈련은 기독교윤리와 어떤 관련을 갖는가? 철학적, 도덕적인 차원의 윤리는 삶 속에서 인간의 행위에 치중하지만, 기독교윤리는 행위자에 주목한다. 즉 기독교는 인간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강조하는 신학 전통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이 도덕 판단의 최고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도덕 행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한다. 기독교윤리는 인간 중심적 윤리를 넘어서 신 중심적인 윤리를 지향한다. 영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기술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리처드 니버의 후계자인 제임스 거스탐슨(James Gustafson)은 이런 맥락에서 ‘도덕 판단’이라는 표현보다는 ‘도덕 판별’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노영상은 그의 기독교윤리를 영성윤리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의 응답은 하나님에 관한 면제나 지식이 아니다. 세상과 세상

42) 위의 책, 323-324.

에 있는 교회의 복종의 대상은 창조와 예수그리스도와 교회 내의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⁴³⁾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윤리를 전개한 제임스 거스탑슨은 성령의 감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신을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점에서 수도원의 기도, 훈련, 절제 등 일련의 영적 훈련은 윤리적 분별력과 실천의 능력을 갖추는 훈련과정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IV. 나가는 말

교회사적으로 수도원운동은 교회가 세상권력과 결탁하여 세속화되고 본질적 사명을 상실했을 때 일어났다. 본 연구에서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연원을 추적하고 유형화를 시도한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 존재하는 여러 수도원들을 연구 조사하고 유형론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첫째, 수도원운동의 발단이 사회적 혼란과 교회의 타락에 대한 반항이라는 점을 숙고하면서, 적용적인 차원에서 현대 우리 사회는 수도원운동의 계승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비록 미미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밝혔다. 유형론적 분석에 의한 은둔형, 공존형, 센터형은 모두 그 양태와 관계없이 그 기저에는 항상 수도원운동의 정신이 배태되어 있고 시대적 각성을 반영한 운동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40년간의 교회 목회를 청산하고 돌밭을 일구고 은성수도원을 설립했던 엄두섭 목사가 생전에 남긴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교파를 초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개신교 수도원을

43) 노영상,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동향(1)』(서울: 예영, 1997), 70.

만들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야 합니다.”⁴⁴⁾ 맘몬이즘 우상이 만연한 세상 안에서 교회는 시대의 풍조와 구별된 수도원적 공동체로 리모델링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기독교와 교회 존립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반성적 통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직면해있다.

셋째, 한국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세속으로부터 이격된 공간, 영적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회귀(장기적이든, 일시적이든)가 필요하다. 수도원운동이 단순히 공간적 위치적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⁴⁵⁾는 한 건축가의 지적처럼, 공간의 의미는 중요하다. 현재 다수의 기도원들과 영성센터들이 관리와 운영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동안 사람보다 건물이 앞서고, 콘텐츠보다 시설 투자가 앞서는 역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천주교 역사에서 나타난 피정을 주목해볼 때, 지금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을 개신교의 수도원 요람 안에 품을 수 있는 ‘영성 훈련’의 공간 활용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44) “김성영 총장의 국내 수도원 탐방 (2)경기 포천시 은성수도원”, 『국민일보』 2004년 3월 7일자.

45) 다수의 건축가들이 종교 건축, 특히 수도원 건축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승효상의 저서를 참고할 것. 승효상, 『묵상, 수도원 방문기』(서울: 돌베개, 2019).

참고문헌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 관련자료

- 강문호. 『천국을 미리 사는 봉쇄 수도원』. 지성소, 2018.
- 김재현 외 엮음. 『한국기독교 성지순례 50』. 서울: KIATS, 2019.
- 김홍일. “한국교회의 문제와 수도원 영성의 재발견”. 『기독교사상』 통권 제675호 (2015), 46-53.
- 배덕만. “한국개신교회와 수도원운동”. 『기독교사상』 제682호(2015년 10월), 51-60.
- 백용기.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의 사회봉사 신학”. 『신학사상』 제132집(2006), 231-257.
- _____.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의 역사와 영성신학”. 『신학사상』 제129집(2006), 29-66.
- 서재룡. “한국교회사 속의 수도원설립자 이현필의 생애”. 『인문과학논집』 제22집 (2011), 219-254.
- 엄두섭. 『수도생활의 향기』. 서울: 보이스사, 1979.
- 용문산수도원 편. 『용문산수도원60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2019.
- 우상대. 『한국 개혁교회 수도생활의 전망과 방향 연구』. 서울: 서강대신학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2016.
- 이덕주. “한국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맥락”. 『기독교사상』(2015년 3월호), 30-38.
- 최중현. “김백문 사후(死後)의 이스라엘 수도원”. 『한국신종교학회』 제6집(2002), 288-323.
- 모새골 편. 『‘모새골’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안내 소책자).
- KIATS 편. 『이세종의 명상 100가지』. 서울: KIATS, 2011.
- KIATS 편. 『풍요의 시대에 다시 찾는 영적 스승』. 서울: KIATS, 2014.

•세계 수도원 및 일반 신학 관련자료

- 강안일. “새로운 수도원운동-본회퍼의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7집(2017), 11-47.

- 김영한.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김창의. 『중세수도원제도사』. 서울: 경인문화사, 1970.
- 노영상 외.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동향(1)』. 서울: 예영, 1997.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서울: IVP, 2002.
- 안수강. “길선주의 성화론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9집(2014), 139-180.
- _____. “루터의 95개조 논제와 칭의사상(稱義思想)”. 『역사신학논총』 제20집(2010), 37-57.
- _____. “1930년 전후 한국교회 신비주의 고찰—신비주의 발흥과 장로교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07집(2018), 105-133.
- 주도홍. 『새로 쓴 세계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10.
- 허성석. 『수도승 영성사』. 분도출판사, 2011.
- Cannon, William R. 서영일 역. 『중세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 González, Justo L. 엄성옥 역. 『중세교회사』. 서울: 은성, 2012.
- Latourette, Kenneth S. 윤두혁 역. 기독교사(상권). 서울: 생명의말씀사, 1979.
- Karl Suso Frank. 최형걸 역.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서울: 은성, 2018.
- McGrath, Alister E. *Reformation Thought*. Oxford: Basil Blackwell Inc., 1989.
- Niebuhr, H. Richard. 홍병룡 역.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2007.
- Sider, Ronald J. 한화룡 역.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08.
- <https://blog.naver.com/youngsung1440/>(접속일자: 2021년 8월 10일)

논문투고일: 2021년 7월 14일

심사개시일: 2021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19일

• 국 문 초 록 •

이 연구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여러 수도원들을 연구조사하고 유형론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도원운동의 발단이 사회적 혼란과 교회의 타락에 대한 반향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현대 우리 사회는 수도원운동의 계승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운동이 이미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개신교 수도원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소위 맘몬이즘이라는 우상에 예속된 세상 안에서, 교회는 시대의 풍조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수도원적 공동체로 리모델링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이든, 일시적이든) 세속으로부터 떨어져 격리된 공간, 영적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처소로 회귀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다수의 기도원과 영성 센터 등이 관리와 운영 면에서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은 사람보다 건물이 앞서고, 콘텐츠보다 시설 투자가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천주교의 피정을 고려할 때, 개신교는 수양회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영성 혼란’의 공간 활용이 요구된다.

주제어: 유형분석, 개신교 수도원운동, 은둔, 공존, 센터형 모델
